

전자담배와 연초담배, 어느 쪽이 더 해로울까?

'그냥 담배 피는 것보다야 나을 거 같아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일에서 종종 흘러나왔을 법한 말이다.

담뱃값 인상 및 금연 관련 정책의 증가로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자담배는 정말 일반 담배보다 인체에 덜 유해할까? 이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자담배에도 중금속이나 포름알데히드같은 독성물질들이 검출된다는 유해론과 연초(烟草)담배(일반 담배)의 독성이 비해 1/1,000 수준에 불과하므로 '못 끊겠으면 바꾸라'는 옹호론이 침에하게 대립하고 있다.

있다.

한국에서는 전자담배에서도 니코틴은 물론이고 각종 위해 물질이 발견되므로 담배 이상으로 해롭다는 주류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만, 영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2015년 영국보건국은 "전자담배는 전통적 연초담배에 비해서 95% 가량 더 안전하다"고 평가하였고 이후 영국 왕립 의사회는 전자담배를 기존의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보조제처럼 금연의 보조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국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는 전자담배에 대한 최신의 근거들에 기초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국내의 정서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주장들이 담겨 있다.

전자담배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거의 없고, 흡연의 대표적인 독성을 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거의 없으므로 당장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에게 금연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연초담배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들이 담겨 있다.

같은 제품을 두고 한국과 영국의 입장이 이처럼 다른 이유는 '비교 대상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국내 언론과 학계가 만들어 내는 전자담배 유해론은 비교 대상이 '비흡연'이다. 반면, 전자담배가 유익하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은 비교 대상이 '연초담배'이다.

전자담배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 발견되면, 한

쪽은 비흡연보다 '해롭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연초담배보다 '훨 해롭다'고 한다.

"사람들은 니코틴 때문에 흡연하는 것이지 타르로 인해 죽고 싶어 흡연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담배를 통한 위해 경감(harm reduction) 이론을 주장하는 마이클 러셀(Michael Russell)의 말이다.

들어가긴 쉽지만 좀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 흡연의 세계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개인차가 심해서 쉽게 끊는 이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암, 수술, 심장마비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원점회귀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니코틴은 중독성은 높지만, 뱀암 물질이 아니며 반감기가 짧아 체내에 축적되지도 않는다.

이전에는 니코틴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연기(타르)를 마셔야 했다면,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거의 순수한 니코틴만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초

에서

액

상형

전자

담

배

로

같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는